

시편 63편 묵상 - 주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개역	사역
<p>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p> <p>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p> <p>3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p> <p>4 이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p> <p>5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 할 것이라</p> <p>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p> <p>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p> <p>7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p> <p>8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p> <p>9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p> <p>10 칼의 세력에 붙인 바 되어 시랑의 밥이 되리이다</p> <p>11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p>	<p>다윗의 시,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p> <p>1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을 내가 간절히 찾으니 나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합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곤핍(困乏)한 땅에서 나의 육신도 주님을 앙망합니다.</p> <p>2 이렇듯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뵈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p> <p>3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좋은 것이기에 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p> <p>4 이렇듯 나는 평생토록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을 들겠습니다.</p> <p>5 기름지고 맛있는 것으로 배부르듯 나의 영혼이 만족하니 입술로 환호의 노래를 부르고 입으로 찬송하겠습니다.</p> <p>6 나는 침상에 누워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밤의 경점(更點)에도 주님을 읊조립니다.</p> <p>7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는 환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 다.</p> <p>8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붙좃으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p> <p>9 그러나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노리는 자들은 땅속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p> <p>10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승냥이의 밥이 될 것입니다.</p> <p>11 그러나 임금님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맹세하는 이들은 모두 찬송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참으로 입이 막힐 것입니다.</p>

더운 여름에 심한 갈증이 있을 때에 누가 냉수를 한 그릇 주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이 없이 메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느끼는 갈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개인이 물을 마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땀별의 광야에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늘을 찾고 물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63편의 시인은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주님을 구하셨습니다. 그의 영혼과 육신은 본능적으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서는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여서 63편과 같은 시편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시편을 찬찬히 읽어가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63편의 처음 네 절에서는 시인이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곤핍한 광야에서 주님을 찾아 성소로 나아가서 찬송하고(1-4절), 둘째 문단에서는 주님의 성소에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찬송하고(5-8절), 마지막 문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찬송합니다(9-11절).

이 시편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그 단어와 더불어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합니다. 처음 문단은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 ‘내 영혼’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둘째 문단은 “기름지고 맛있는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니”(5절), 그리고 셋째 문단은 “그러나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노리는 자들은 땅속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9절)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네페쉬’는 ‘목’, ‘숨’, 혹은 ‘숨통’이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목마른 것, 만족한 것, 원수가 공격하는 것을 ‘영혼’이라는 단어로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63편에는 “다윗의 시,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곤핍한 땅”이라는 1절 말씀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다윗은 두 번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와(삼상 23:19),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입니다(삼하 15:23). 그렇게 쫓겨났을 때에도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에는 왜 자기를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아내서 방황하게 하느냐고 사울에게 반문하였습니다(삼상 26:19).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에는 곤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나아갔고 거기에서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시 3편). 메마른 광야에서 도피생활을 할 때에도 다윗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성소에서 주님을 뵈고서 주님을 찬송하고,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신약의 백성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주님께 대한 확신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고, 우리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는 시편입니다.

1. 목미름과 찬송 (1-4절)

- ¹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을 내가 간절히 찾으니
나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합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곤핍(困乏)한 땅에서
나의 육신도 주님을 앙망합니다.
- ² 이렇듯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뵈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뵈니다.
- ³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좋은 것이기에
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 ⁴ 이렇듯 나는 평생토록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을 들겠습니다.

1)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음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이 시편을 썼는데,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것은 심신이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며 곤핍한 땅을 걸을 때에 몸이 피곤할 뿐 아니라 살던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마음도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몽진(蒙塵)할 때의 그 어려움은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困憊)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삼하 16:11) 하는 묘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곤핍(困乏)한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하고 뜨겁고 곤핍한 사막에 있으면 생존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막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분기점에서 절박하게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갈망하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의 몸과 영혼이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피신한 다윗은 “그들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뿐 아니라 몸으로도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듯이 그는 ‘주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갈망을 품고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2) 성소에서 보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시인은 주님께서 계시는 성소로 나아갑니다. 생명과 사망이 갈리는 절박한 환경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아서 성소로 나아갑니다. “이렇듯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뵈고”에서 ‘본다’^[하자에]는 단어는 ‘선지자가 이상을 보는 것처럼 본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시인은 실제로 성소에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선지자가 이상을 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의 성소에 이르렀습니다.

시인이 성소에 나아가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성소에서 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과 영광 안에서 자기의 구원도 발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3) 생명보다 좋은 것인 인자하심

시인은 성소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는 주님의 인자하심^{헤세디}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시인이 몸과 영혼으로 구한 것은 육신을 살려줄 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는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인자하심’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데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고,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은 것도 언약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도 곧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면서 그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시면서 주님께 ‘인자와 진실하심,’ 곧 ‘참된 인자’가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참된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출 34:6-7).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하다’ 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물이 없고 곤핍한 땅에서 방랑하고 있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찬송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생명 보존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소에 계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거기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무한한 인자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을 깨닫고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4) 찬송과 기도

입술로 찬송한 시인은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을 펴서 든다’는 것은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손바닥을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 주님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방향을 가리킬 때에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어올립니다(시 141:2; 딤후 2:8). 둘째는 빈손으로 구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무엇을 잡고 있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주님께서 채워 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손을 그가 구하는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찬송을 드렸지만 여전히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주님께 빈 손을 들고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자기의 현실적인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표현한 언약의 교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족함과 찬송 (5-8절)

- ⁵ 기름지고 맛있는 것으로 배부르듯 **나의 영혼**이 만족하니
입술로 환호의 노래를 부르고 입으로 찬송하겠습니다.
- ⁶ 나는 침상에 누워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밤의 경점(更點)에도 주님을 읊조립니다.
- ⁷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는 환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 ⁸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붙좃으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여 주십니다.

1) 함포고복(含哺鼓腹)과 오매불망(寤寐不忘)

시인은 빈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교제의 상징인데(사 25:6; 계 19:9; 속 9:15), 그 교제의 풍성함을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추구하였던 것은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몸과 영혼으로 갈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름지고 맛있는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 것처럼, 시인의 영혼과 마음을 가장 좋은 것, 곧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먹는 것을 추구하고, 건강식으로 섭생(攝生)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지만 찬송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시인의 입에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시인은 이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입술로 환호의 노래를 부르고 입으로 찬송합니다. 함포고복(含哺鼓腹)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시인이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는 끝이 없습니다. 낮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찬송을 드립니다. 경점이라는 말은 밤을 나눈 한 부분입니다. 새벽 2시나 3시를 가리켜서 밤의 한 경점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도 시인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성전에는 불이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밤중에도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시 134:1). 시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도 찬송을 합니다. 주야로 여호와와 율법을 읊조리는 복된 상태에 있습니다(시 1:2). 그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께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매불망(寤寐不忘) 찬송합니다.

2) 주님의 날개 - 보호와 교제

광야는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큰 곳이고, 그러한 곳에서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에게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개로 품어서 보호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시인은 주님께 환호의 찬송을 부릅니다. 어미 새가 새끼를 품에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의 품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신 32:11). 원수가 싸우려고 덤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여서 보호를 받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인은 거기에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환호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해 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모두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주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3) 주님을 붙좃음

시인의 영혼이 주님을 붙좃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시인을 붙잡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친밀한 교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붙좃았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입니다(창 2:25). 이 말은 롯이 나오미를 붙좃았다고 할 때에 나옵니다(룻 1:14). 오르바는 모압 남자를 붙좃았지만 롯은 나오미를 붙좃아서 시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자기도 묻히겠다고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붙좃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신 4:4).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밤중에도 주님을 읊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물이 없고 곤핍한 광야에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고 시온좌 위에서 날개를 펴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날개 그늘로 품어 주셨습니다. 시인은 온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붙좃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3. 심판과 찬송 (9-11절)

⁹ 그러나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노리는 자들은
땅속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¹⁰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승냥이의 밥이 될 것입니다.

¹¹ 그러나 임금님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맹세하는 이들은 모두 찬송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참으로 입이 막힐 것입니다.

1) 원수의 멸망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시인을 만족하게 하시지만, 여전히 시인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의 영혼, 곧 숨통을 노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가져온 칼날에 자기가 쓰러집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나온 용사가 갑자기 쓰러지자 들판에 있던 짐승들이 그 시신을 먹습니다.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실로 가

장 불행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사 18:6; 렘 7:33).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한 시인은 여전히 광야에서 살고 있고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날에 쓰러지고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원수들을 물리치심을 기대하고 시인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찬송합니다.

2) 임금의 기쁨

11절에서는 임금님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여호와를 기다리다가 임금을 위하여 기도한 예를 우리는 시편 61:6-7에서도 봅니다. 임금님의 날수에 날수를 더하고 햇수에 햇수를 더할 뿐 아니라 인애와 진리를 보내어서 그를 지키게 하여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61편도 땅 끝 아득한 곳에서 여호와를 간절히 부르는 사람의 시편인데 임금을 위한 간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직분자의 역할이 구약 교회에서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위는 황폐한 사막과 같지만, 이러한 때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임금이 있는 것이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임금님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63편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읽는 것은 그 임금님은 시인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데, 그 시인은 임금입니다. 왕인 시인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후에 악한 왕이 다스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임금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도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직분자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참조 시 61:5-8). 시편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하여서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합니다.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에만 국한시켜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63편의 맥락에서 보면, 임금은 자기가 처한 황폐한 상황에서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생명보다 귀하고, 자기의 생명의 근원은 주님의 자비하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파멸시키려는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반대하거나 아첨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침묵시키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거짓말하는 사람의 침묵

11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입을 막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입이 막힌다는 말은 찬송하는 무리에 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임금과 백성이 모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찬송하는데, 거짓말을 일삼던 어떤 사람들은 그 무리에 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드러나서 찬송하는 그 자리에 악인은 끼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추종하였던 사람들은 다윗이 환궁(還宮)하였을 때에 입이 막혔을 것입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은 입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인애하심을 뵈고 찬송을 드린 사람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마지막에도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이고 거짓말만 하던 사람은 찬송하는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찬송하는 거기에서 한자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찬송 대신에 슬피 우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깊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하여서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매우 두려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고 원망하거나 주위 사람만 탓하거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없고 찬송하는 것도 없는 그 사람은 계속하여서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입이 막히는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인애

1) 참된 인애와 생명

63편은 유대 광야에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부른 시편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장면이 바뀌어서 성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인애하심에 나타난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날개로 품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시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는 자기의 힘으로 제 생명을 유지하고 더 운택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생명의 근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찾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인자하심을 얻었으면 그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참된 인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는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곤핍한 광야와 같은 곳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갑니다.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를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한 시간만 걸어가면, 어질어질할 뿐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가까이에서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63편에 보면 원수가 시인을 칼로 공격하고 거짓말로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동일한 일들을 당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다고 생각한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로 주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심하면 비수로 목을 겨누면서 예리하게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살면 물이 없어서 죽을 수 있고 원수의 꾀계나 공격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맞서서 싸우든지, 힘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있는 이 세상은 문자 그대로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시인은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애하심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수를 주셔서 흡족하게 마시게 하십니다.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십니다. 넉넉히 먹여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인애를 추구한 시인을 주님께서 품안으로 끌어들이시면서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보기에 이 세상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말과 폭력으로 공격하는 원수가 있는 광야이고, 다른 곳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성소입니다. 시인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 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개로 품어 주시고 주님의 보좌에서 생수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신 하나님의 백성은 평생토록 주님을 찬송합니다.

2)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임금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여도 다른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메마른 황야 같은 땅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에 임금을 생각하였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왕위에 있었을 때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왕위에 있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면 임금을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임금, 메마르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한 임금을 시편 63편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그림자를 보지만, 성신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첫째 아담이 선악과라는 먹는 것으로 실패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사탄을 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마 4:4) 하면서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63편의 표현으로 하자면, “주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귀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이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굶주리신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사탄에게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시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시자 거짓의 아비 사탄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3) 그리스도인의 기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63편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과 우리를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원수를 두려워하여서 주님의 인애하심에 무엇을 덧붙태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자기의 목숨, 이 두 가지를 모두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생명뿐 아니라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 곧 주님의 인애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언약의 사랑을 나눕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인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무한하여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사 35:6-7)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서 본 것처럼,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사해까지 흘러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꿀 것입니다(겔 47장).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서 온 세상을 주님의 성소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은 황량한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찬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바꿀 그 생명수를 주님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신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요 7:38).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며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계

7:16-17).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마시도록 하십니다(계 21:6).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이제 성신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계 22:17).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마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며, 죽음을 넘어서 주님의 인자하심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성은교회. 2008년 12월 7일)